



## 불교 자주, 종단 지도부 부터

### 박세일 서울대 교수, 제2차 한국불교종흥토론회서 주장



“현재 한국불교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의 문제는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내부의 문제거나 종단 지도부의 의지 문제다. 교단 내부에서 대정부 활동에서 교세에 의지해 합리적 논리를 지어낸다면 교단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할 것이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2월 23일 주최한 ‘한국불교 종흥을 위한 2월 대토론회’에서 박세일 서울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불교계가 주장하는 정부권력의 종교 침해의 원인이 종교 내부에 있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재 한국불교가 국가나 정권에 예측돼 자주성과 독립성을 잃고 있는지에 ‘아니다’고 답을 내렸다”며 “한국불교는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의 재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스님들의 원력만 있다면 불사하고 포교하는데 적어도 제도적 정책적 장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불교교단의 국가정책에 대한 주장을 정부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불교적 발상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사회활동에 앞서 교세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치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교수는 “종단 지도부 스님들은 불교를 외호·홍포하기 위해 제도상 해야 하고 때때 협조를 구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교단의 대정부 활동이 합리적 논리가 아닌 교세에 의지하게 되면 종교 관련 중요

정책을 정부의 시혜적 결정에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종교계의 개입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정치권력의 종교계에 대한 개입에 대한 비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조계종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불교적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교수는 국가 정책 등에 종교계가 기본적인 인권과 공동체 생존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불교계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종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치밀한 합리적 논리가 불교계 내부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정부·대사회에 필요한 기준과 논리가 준비돼야 하며 불교사회과학원과 같은 불교정책연구기관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우선

회 부위원장은 “불교가 정권에 예측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으로 그 결과는 늘 법난에 준한 사태였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계가 국가의 압박을 받을 때는 우선적으로 불교 내부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예경 논쟁에서 해원 스님이 수행정신과 교리이해로 법난을 극복하고 사회신뢰를 지켜나간 것과 같이 지금 종단은 성철 스님의 봉암사 결사정신을 상기해 철저한 수행으로 일반 대중의 선망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불교, 자부심 가져야”

반면 첫 번째 토론자로 참가한 민족문화추진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법치국가에서 종교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며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결벽증은 오히려 자신에게, 또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정치를 정치권력과 정치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 법을 만들고 고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병준 교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특히 남성들 중 불교신자로 공표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며 “이유는 ‘불교’로 표현해 좋을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노덕현 기자

#### ■박세일 교수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0~1985년 KDI 연구위원, 1985~1994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94~1998 청와대 정책기획·사회복지 수석비서관, 2002~2004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2004~2005년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 교세 의존 대정부 활동은 정교유착 빌미

##### 정부와 소통 거부, 불교적 방법 의문 불교종흥 합리적 논리 내부서 찾아야

과제로 제안했다. 또 △역경의 완성 △계율정신의 회복 △수행가풍의 확립 △승가교육제도의 개혁 △포교활성화와 세계화 △종단과 사찰운영의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들었다.

보광 스님은 “엄밀히 말하면 불교에 예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불교의 자생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현재 종단이 진전하는 5대 결사 등 자발적인 결사 운동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승유역불정책에도 새싹을 내 살아남은 것은 각 사찰에서 일어난 신앙결사운동 때문이었다”며 “선 수행만의 정체성 강조로 생긴 일반신도들의 신앙적 갈등을 매우기 이해 가라신양운동인 결사운동과 함께 타력신앙의 논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철저한 결사정신 만이 살 길”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 발제한 원택 스님(조계종 화쟁위원



봄이 오고 있다

늘 봄 소식은 꽃이 전해온다. 2월 20일 부여 무량사에는 목련이 꽃봉오리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섰으면 금방 꽃이 필 것만 같다. 곧 하얀 꽃을 띄울 목련이 영산전 마당에서 멀리 5층석탑에게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 선암사 재산권 이양 순천시장 관리인 해임

순천 선암사 분규 종식을 알린 조계종과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순천시로 부터 찾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6일 순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태고종 협상위원회(위원장 일문·화경)이 요청한 재산관리인 해임 요청에 따라 22일 순천시장을 선암사 재산관리인직에서 해임했다.

문광부는 양측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재산관리권 이양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위원회는 양측 선암사 주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관리권 공동조사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산관리권을 빠른 시일 내에 인수받을 예정이다.

협상위는 부동산 및 문화재 등 선암사 소유의 재산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매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선암사 재산관리권 인수 및 향후 운영에 관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협상위원회(위원장 일문·화경)는 2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 길상사, 누가 망쳤나?

##### 법정 스님 열반 1주년 만에 이전투구(泥田鬪狗)

이번 일은 한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삶을 살라”고 늘 강조했다. 길상사를 말하면 ‘맑고향기롭게 근본 도량’이 아니라 ‘법정 스님이 시주 받은 사찰’이 떠오른다. 맑고향기롭게 말하면 ‘참 보살들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전 유행한 연꽃 스티커’가 떠오른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이 주지 소임 2년, 맑고향기롭게 이사직 10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수행자의 길을 떠났다. 법정 스님 입적 1년만이다. 대중이 만들어 놓은 실패작품이자 기회다.

덕현 스님은 2월 7일 맑고향기롭게 소식지를 통해 ‘이사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 21일 길상사 홈페이지에 ‘그림자를 지우며’라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의 고뇌와 내부의 문제를 소상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드러난 길상사와 맑고향기롭게 내부 갈등은 가시거리가 됐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은 일련의 일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언론 등에서는 길상사 전 주지 덕조 스님과 덕현 스님의 주지를 둘러싼 욕망으로 분석했다. 과거 법정 스님과 덕조 스님의 갈등을 들먹이고, 법정 스님의 유언도 다시 펼쳐졌다. 배후조종자가 있다는 등 조작된 유언이라는 등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았다.

덕조 스님은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여기(불일암)에 있으니까 서울 가기 싫어졌다. 서울에서의 삶은 고갈되는 삶이고 수행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고 법정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다. 덕현 스님이 떠난 후 문도회의를 통해 길상사 주지에 법정 스님의 다섯번째 상좌 덕은 스님이 문도회의를 통해 내정됐다.

오로지 시비와 분별심으로 바라본 남의 이야기 하듯 세속의 잣대는 쓸모없는 의혹만 키웠다. 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비밀리에 진행됐다. 17일 해제 때는 “이사회를 한 번 할 때마다 분변을 당하는 기분이었다”며 감사와 직원의 언행과 자신의 고뇌를 폭로했다. 충격이었다. 거론된 관계자들은 법정 스님 기일까지 묵번대처 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3월 2일 공식 해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이상언 기자 kemichino@gmail.com

#### 825호 CONTENTS

▶5 현장속으로 국제선센터 차명상



▶7 혜정 스님 입적



▶12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 부여 무량사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침향염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뒷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활인선원 정진대중

### 삼매체험선수련회·단기출가 제5차 참선대중화선회

- 공부 힘을 얻어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산다.
- 물만 마시고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 퇴치·예방가능
- 모든 장애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누린다.
- 면역성, 노화방, 해독, 아토피, 피부미용, 생리연장, 금연
- 부담을 없앤 단식, 금강단식, 바로 끊고 바로 먹는 뒤탈 없는 참선 단식

청소년 대학생 일반

하안거 동안거 산철결제 일정	수련회 단기출가 일정
하 안 거(음) 4월 15일 - 7월 15일(3개월)	3월 26일 ~ 3월 30일( 5일간)
가을산철(음) 8월 1일 - 9월 30일(2개월)	~ 4월 23일(30일간)
동 안 거(음) 10월 15일 - 1월 15일(3개월)	4월 8일 ~ 4월 12일( 5일간)
봄 산 철(음) 2월 1일 - 3월 30일(2개월)	~ 5월 7일(30일간)

참선대중화선회 일정 (3일간)  
4월 8일(금) 오후 3시 입재  
다이어트 1일 최고 3kg